



박 창 근

〈본회고문 · 환경교육회 회장〉

미국의 또하나의 현실

- 아메리카 인디언이 떠나고 난뒤 -

“젊은 시절에 나는 이 프레어리 초원에서 허다한 들소 떼를 보아왔고, 큰 사슴무리를 숲속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소. 그러나 이젠, 해가 지는 곳을 찾아 사라져버린 뒤, 여기엔 그 동물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소.

그 옛날엔 수백 마일에 걸쳐 백인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교역소와 정착자들이 나라 전역에 걸쳐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고 있고, 몇년이 지나면 그들의 통나무 집에서 나오는 열기가 숲 어디에서나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일것이고……”

미국땅의 진짜 주인인 아메리카 인디언 포타와토미(Potawatomi)족의 추장겸 대변인인 샬보니(Shabonee 1775~1859)가 같은 동족인 워네바고 추장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그가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의 미국땅엔 야생의 들소 떼는 사라진지 오래며, 다만 동물원에서 가축처럼 키워지는 들소의 모습을 한 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 여기 저기에 문명인이라고 자칭하는 백인들이 살면서 집(공장)에서 나오는 열기로 하늘을 더럽히고 있다.

흔히들, 미국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치루는 시민권 시험에서도 “Who discoverd America?”라는 질문에 “Christoper Columbus”라고 대답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웃기는 얘기다. 누가 무얼 발견했다는 이야기인지? 언어도단도 유분수다.

아메리카 땅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대지가 아니다. 새나 짐승도 없었던 황무지가 아니었다. 아메리카 땅에는 애초부터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종족이 대대로 뿌리내려 살고 있었고, 새와 짐승 그리고 물고기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무얼 발견했다는 이야기인가? 손님이 주인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인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찾아냈다는 것인가? 하여간 콜럼버스 이래, 잔인한 백인



마지막 아메리카 인디언

은 아메리카를 철저히 약탈한다. 새나 짐승은 물론
의 주인인 인디언들까지 토벌해 아메리카를 차지해
린다.

실지로 인디언들은 백인들에 의하여 야생동물이 살육
고 그들 조상들의 성스러운 땅이 유린당하자 인디언
족의 의지와 영혼은 쇠퇴하고 사멸되기 시작했다.

인디언들은 땅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고 동물들과 공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후예들은 땅을
주하고 동물들을 살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한 윈투(Wintu)족 여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우리가 메뚜기를 잡으려고 목초지를 태울지라도 땅
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겨우 도토리나
방울들을 흔들어 떨어뜨릴 뿐이다.

그러나 백인들은 땅을 파 뒤엎고, 나무를 넘어뜨리
, 모든 것을 죽여버린다.

그들은 바위를 폭파시켜 땅위에 흩뿌려 놓는다. 대지
정령(程靈)이 도대체 어떻게 백인들을 좋아할 수 있
는가? 도처에서 백인들은 대지에 손을 댔고, 대지는
처로 쓰라린다.”

오늘의 미국 — 병든 도시와 타락한 인간 그리고 파
괴된 자연으로 오염은 더욱 가속, 심화, 확대되고 있
다. 그리고 세계의 강국에서 세계의 채무국으로 전락하
고 있다.

머리와 꼬리는 있어 보이지만 몸동아리가 없는 미국
의 실정은 세계에서 쫓기고만 있다. 월남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왜 오늘의 미국은 병들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없는 귀결을 우리는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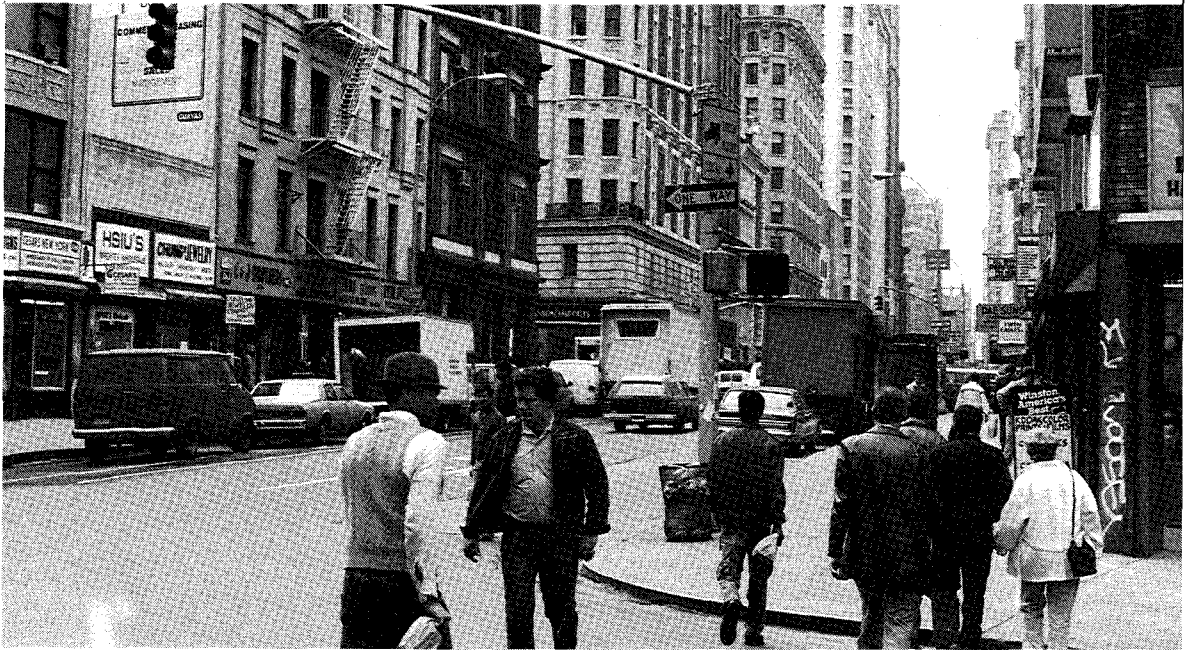
빼앗고 상처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

“우리는 항상 풍족했다. 우리의 자식들은 결코 굶주
림에 물어본 적이 없었으며 우리민족은 결코 궁핍한 적
이 없었다. 바위강(Rock River)의 급류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고 토지는 매우 비
옥하여 옥수수, 콩, 호박 등속을 얼마든지 수확하게 하
였다.…… 여기에 우리 마을은 일백년 이상이나 서 있
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미시시피
계곡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계곡은 늟름하였
고, 이 나라에 이처럼 좋은 곳은 또 없었으며, 우리의
사냥터보다 훌륭한 곳은 아무데에도 없었다.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그 당시에 우리의 계곡에 와서
그 이후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 미국 시민을 거부하고 아메리카의 주인으로 고집하는 인디언



▲ 100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우거진 나무숲이었고, 들소떼들이 신나게 달리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빌딩숲과 자동차들만이 다너, 병들어가고 있다.

예언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검은매」(Black Hawk) 소크(Sauk)와 폭스(Fox)족의 추장 「마카타이메세키아키악」은 우매(?)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2백년 후의 오늘, 미국은 굶주린 자가 공원 곳곳에 널려있고, 집없는 자가 지하철역의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공해로 대기는 사라지고 있고, 그토록 늠름했던 계곡엔 빈 깡통만이 덩굴고, 물고기는 오염으로 등이 굽어가고 있다.

그것이 주인을 내쫓고 풍요를 착취한 자의 말로가 아니겠는가? 아메리카 인디언은 원래 시베리아 쪽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거쳐 지금의 미국 대륙으로 옮겨온 동북아시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머리가 새까맣고, 피부색도 마찬가지로, 얼굴 모습 같은 것,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할 정도가 넘도록 같고, 특히 그들의 노인들을 보면 우리의 노인네들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생활풍속도 언어도 비슷해 아메리카 인디

언의 먼 조상과 우리의 먼 조상이 한 형제였다는 이야기는 과장만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더욱 미국을 유심히 보게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상치를 가슴아파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저력은 마지막 불티 같은 그런 꺼지기 직전의 저력일 뿐이다. 진정한 미국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성급하고, 무질서하다. 그리고 미국인은 잔인하고 무섭다.

그런 그들의 천성을 교묘히 숨길줄 안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러운 미국이고 미국인이다.

우리 한국에는 아직 미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비록 자연은 많이 파괴되고 환경은 심하게 오염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땅에서 태어나고, 살았고, 살아갈 유일한 곳이기때, 곧 그 의미를 깨달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자연은 복구되고 환경은 회복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보다 희망을 거는 것이다.

1988. 9. 25 New York에서